



다민족들이 연합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주최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행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홍 목사,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 마이클 페트로 목사.



살롱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11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13일 오후 7시에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해외의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지원에 사용된다.

“휠체어 사랑이야기”

올해는 아프리카 부룬디 향해

현재까지 전세계 4만5천명 이상에게 도움 줘

살롱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11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13일 오후 7시에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소프라노 최정원, 바리톤 권영대, 트럼펫 Joey Ko, SCDC 수화찬양팀, 한인기독교합창단, SDM찬양단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박모세 목사는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9차에 걸쳐 4만 5천 명 이상의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LA 코리아타운 내 허름한 건물 2층에서 월 1천불 렌트에 조그만 사무실과 예배실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었다”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나약했던 시기에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해외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박모세 목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30차 사업은 특별히 본 선교회 후원하는 열 번째 국가로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인 부룬디에 휠체어 등 의료 기

기와 함께 소모품을 보내는 일이다”라며 “감사하게도 아프리카의 한센인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신인환, 신은남 선교사 부부를 통해 부룬디의 장애인 및 한센인 사회 속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됐다. 한인사회의 불경기로 인해 선교기금 조성이 갈수록 어렵지만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면 지구촌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목사에 따르면, 200불이면 수동 휠체어 1대와 크라치 등 기타 의료 보조기 2세트를 구입해 총 3명의 장애인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줄 수 있다.

콘서트에서는 유영기 목사(이사장)가 말씀을 전했으며 각 팀의 공연 후, 모든 참여자들의 연합찬양으로 아름다운 대미가 장식됐다.

살롱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는 1989년 8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는 전신마비 장애인인 아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됐다. 18년 전 미국에 온 박 목사는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꺼려, 숨어 지내는 장애인을 적극 찾아내서 섬기는 'Search & Serve'를 모토로 살롱장애인선교회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맹 토마스 기자

“주여! 미국에 대부흥을 주소서”

2011년 로즈볼 열기 이어 이번에는 앤젤스 스타디움에서

미국의 대부흥을 위한 다민족 기도회에 한인들이 또 한 차례 힘을 모은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에서 열린 다민족 기도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대회는 이번에는 같은 날짜에 앤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011년 기도회에서는 남가주 지역의 크리스천 3만5천여 명이 미국의 부흥과 회개, 영적 대각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바 있다. 당일 대회 참석자 중 1만2천여 명이 이상이 한인이었음 만큼 한인들은 이 대회에 적극 참여해 다민족들과 함께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인들의 영성을 주류사회에 소개할 바 있다.

이후 로즈볼 대회 주최측은 2012년 10월 27일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에서 또 한 차례 다민족 기도회를 여는 등 크고 작은 모임들을 이어갔다.

올해 2014년 11월 11일 열린 기도회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7월 1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한기홍 목사를 비롯해 미주성서화운

동본부 대표 박희민 목사, 이 행사를 다민족들과 연합해 주도하고 있는 전두승 목사(시티하베스트교회), JAMA 부대표 강순영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와 마이클 페트로 목사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한인교계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안드레이드 목사는 “지금 미국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연합해 기도하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에 대부흥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정에 따르면,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래 위의 선(A line in the Sand)”이란 주제 아래 기도회가 열리며 한인들은 특별히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기도회를 갖게 된다. 교계에서는 미기총, 남가주 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OC목사회, KCCC, JAMA, 남가주청년목사회 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대회에 약 6만여 명이 참석하길 기도하고 있

며 특히, 로즈볼 대회 당시 약 400여 명이 치유를 받은 사건과 당일 내리던 비가 멈춘 기적 같은 역사가 이번 대회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한국장로신문 미주판 창간 본지와 기사 제휴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김영장)를 중심으로 한국장로신문 미주판이 창간된다. 한국장로신문은 41년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창간됐다. 미주판은 본 기독교일보와 기사를 제휴, 협력한다.

한편, 장로협은 제8회 사랑의 찬양제를 7월 21일 오후 5시 가든스윗호텔(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에서 창간예배를 겸해 개최한다. > 문의: 213-284-1212

william2wt@hotmail.com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 \$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프로지(PRO-Z)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가능케 해 당뇨병에서 해방됩니다. 프로지(PRO-Z)는 근육세포 내에 당 대사를 거부하는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이상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 ✓ 한국 30만명 판매
-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3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뜨겁게 찬양하라! 세상을 향해 외쳐라!”

CCM루키 오디션 본선 열려... 대상 이하나, 금상 김용훈



CCM루키 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하나 씨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문화사역자, 찬양사역자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CCM루키(CCM Rookie) 본선이 7월 12일(토) 저녁 7시 동양선교회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본선 진출자는 최형민(은혜한교회), 홍세영(Graceway Church), 이현지(선한정교회), 이하나(지주교회), 최재량(미주양교회), 백수진(샌디에고베델교회), 양지아(Restoration Church), 익투스(나눔선교회), 김용훈(나성영락교회), 윤요한(나성순복음교회) 등 10명이었다. 이들은 대회 멘토인 랜디 김, 김진수, 브랜든 정 씨로부터 지도와 훈련을 받고, 멘토가 편곡한 곡을 부르며 자신의 달란트를 드러냈다.

본선 진출자들이 부른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부르심”,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감사함으로”, “사명자”, “Open the Eyes of My Heart” 등 유명 CCM곡과 찬송가가 대부분이었다. 정종원 목사, 박종술 목사, 강찬 전도사, 보컬리스트 Gina Sputo, 프로듀서 Steve Billman

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진출자들의 무대를 평가하며 격려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이하나가 대상을 수상했고, 김용훈이 금상을, 양지아가 은상을, 윤요한이 동상을 받았고 특별상으로 백수진이 지출상을, 김용훈이 기획사상을 받았다.

나는가사다, 슈퍼스타K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능과 끼를 겸비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식을 기독교 문화와 접목한 원하트미니스트리(One Heart Ministry)의 시도는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에 비교해 볼 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소 눈에 띈다.

먼저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뛰어난 가창력, 실력뿐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다. ‘사연팔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참가자들의 사연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평면적 진행에 극적 요소를 불어넣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삶의 무게와 진정성을 부여해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대회는 녹화방식

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제약이 있었으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들의 신앙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었다면 이들의 찬양이 지닌 진폭이 더 커질 수 있었을 것이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것 중 하나는 독설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7:1)는 말씀에 익숙한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공연에 임한 참가자를 향한 날선 평가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인재 발굴을 위해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평가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극적인 방식을 추구하지는 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평가가 더해진다면 CCM루키 오디션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성곡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아쉽다. 그만큼 작곡과 창작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이를 교사삼아 크리스천 작곡과 창작을 더 활성화하고 관심을 기울여 크리스천 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가꿔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 CCM계에서 최초로 이뤄진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의 행사로, CCM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매우 부합했다. 또 첫 행사임에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CCM 사역자들이 멘토 혹은 심사위원 등으로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뜻깊었다.

원하트미니스트리는 음반기획 및 제작, 공연기획, 미디어 서포트, 웹디자인 등의 사역을 통해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이 시대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 주디 기자

늘워한인교회, 미국인 교회와 합병

창립 4주년 맞아 제2의 도약 다짐



늘워한인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도약을 다짐했다.

늘워한인교회(허귀암 목사)가 13일 주일 오후 7시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로, 권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4년 전 허귀암 목사 가정 2명이 개척한 늘워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인 교회인 늘워연합감리교회와 합병해 미국 교회 안에서 한인 목회를 새롭게 출발하며 제 2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허귀암牧사는 “늘워감리교회 교육관을 빌려 쓰다가 아예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사실 고민하며 기도했다”며 “교단이 다르나 그들로부터 우리가 증거를 받았다는 게 감사하다. 전교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허귀암 목사의 사회로

1부 감사예배, 2부 임직식 순서로 진행됐고 김영대 목사(중부교회협의회 중경회장)는 골로새서 1:23-25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김영수 장로, 김병호 안수집사, 김순금 권사가 임직자로 선출되어 서약을 했으며, 허귀암 목사가 취임기도를 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어 장재원 목사(중부교회 협 중경회장), 김준현 목사(중부교회 협 중경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허귀암 목사는 “오늘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이나 미국교회와 합병하게 된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이뤄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인규 기자

임직식 목사 신간 “한 길로 가려무나” 출판

나성세계교회 임직식 목사가 네 번째 목양칼럼집 “한 길로 가려무나”를 출판했다. 그가 18년간 이민 목회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서신들을 묶은 책이다. 임 목사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 걸음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오는 7월 31일 오후 7시 나성세계교회(300 S. Hobart Bl. Los Angeles CA90020)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참석자들에게는 임 목사의 저서가 선물로 증정된다. >문의: 213-219-9229

예수치유와 건강 세미나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와 JAMA(대표 김춘근 장로)가 연합해 <예수치유와 건강 세미나>를 갈보리선교회(심상은 목사)에서 개최했다.

강사는 신경과, 뇌과 전문의인 배성호 목사였다. 이날 배 목사는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와 건강, 2.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면, 3. 육체의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삶, 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관리 등에 관해서 다루었다.

그는 건강을 신앙적 측면에서 조망 인적 치료에 관해 도전을 받았다”고 해 큰 호응을 얻었고 목회자들은 “전

청소년 위한 Seeds of Worship 뮤지컬

문화사역단체 Seeds of Worship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을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나침반교회(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개최한다.

이번 뮤지컬의 제목은 “완전한 사람들(Perfect People)”이다. 주최측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또한 절망 중에서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전

했다. 이 뮤지컬은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 5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Seeds of Worship이 준비한 이번 뮤지컬은 소년 소녀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합창 댄스와 함께 현대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

공연 티켓은 행사 당일 1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문의: 714-904-8434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받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제25회 여름 산상대부흥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2:13)

당기선교를 그리는 근국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문 고문 고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상임회장 중경회장 중경회장 실무위원장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형순 목사 삼양감리교회 배동운 목사 청양리감리교회 추연호 목사 은파감리교회 김중훈 목사 활천감리교회 김태식 목사 선민감리교회 구자경 목사 창천감리교회 고은기 목사 보림교회 김영덕 목사 삼일교회 최동률 목사 새영교회 김평석 목사 은혜감리교회 정남준 목사 광운회성교회 박복영 목사 공주회성교회

홍보위원장 21C 위원장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김민호 목사 남치논교회 이현승 목사 하와이감리교회 김성희 목사 하와이감리교회 김경식 목사 임마누엘교회 김의택 목사 약산성광교회 임민희 목사 증기문교회 손순수 목사 동탄순복음교회 강신권 목사 LA세계성광교회 김완기 목사 서울정령외파교회 이금자 목사 소망교회 정갑수 목사 새생명교회 이수일 목사 수임감리교회

미주자문위원 시카고지부장 미주지부장 뉴욕지부장 하와이지부장 강동지부장 흥천지부장 시흥지부장 인천지부장 부산지부장 독산지부장 찬양강사

김순철 목사 시카고방송국장 안성기 목사 남치논교회 이웅 목사 토렌스사랑교회 차철회 목사 청양교회 백애현 총무 하와이영양안교회 김은혜 목사 수경교회 이상욱 목사 물결동산교회 조정애 목사 한국교회 조정숙 목사 제인중앙교회 강명애 목사 반석교회 홍사선 목사 행복원교회 고해옥 사모

일시: 2014년 7월 21일(월)~25일(금)까지
집회: 새벽6시 낮11시 저녁7시 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기 30-2 유통상가 412-1
www.ellim1004.com / Tel/(02)2632-4806 2634-6557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독교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4리 산 60-1번지(파주출)
Tel. (031) 531-1151~2, 533-0602

한국형 자선교학 콘텐츠: 새벽기도, 교회 개척, 리더십...

조명순 선교사, NCOWE서 선교 관계자 대상 설문 결과 발표



조명순 선교사가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 관계자들은 대체로 '자선교학(自宣敎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 가능한 한국 특유의 콘텐츠로는 '새벽기도'를 가장 많이 꼽았다.

14~16일 용인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 중인 NCOWE에서 조명순 선교사(한국형선교개발원 원장)는 첫날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다.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해 진행된 이 리서치는 올해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06명(지역교회 목사 25명, 신학교 교수 19명, 현장 선교사 31명, 선교단체 사역자 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명순 선교사는 "이번 주제가 '한국'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며 "그 흐름이 25,745명(KWMA, 2014) 한국 선교사들에게 재해석되어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독특함에 바르게 담기는 '복음'이 되도록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선교사는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비서구권 국가들과 한국의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가난을 경험하고 있고, 같은 국가 안에서 종족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에게 좋은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며 "한국교회가 달려온 130년 속에 세계 선교계에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 자신학으로 '위기 속의 변혁'이라는 주제가 금번 NCOWE VI를

통해 제시되고 확정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학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해하는 정도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84.9% 정도였다.

자선교학이 "매우 필요하다" 42.5%, "대체로 필요하다"는 35.8%로, 총 78.3%가 자선교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만 지역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 선교단체 리더 그룹들의 자선교학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87~94% 정도인 것에 비해 현장 선교사들은 51.6%에 그쳤다.

한국 자선교학에 포함할 수 있는 특유 콘텐츠 여부에 대해 81.1%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중복응답) 새벽기도 58.1%,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 50.0%,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38.4%, 심방 37.2%, 효 사상 29.1%, 기타 27.9%, 성경공부 14.0%, 성령사역 12.8% 순이었다.

조 선교사는 특히 가장 많은 이들이 한국 특유의 자선교학 콘텐츠로 꼽은 '새벽기도'에 대해 "보수계 신학자 박아론은 '새벽기도의 신학'을 주장하였으며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지닌 신앙의 요소를 '신비'(mystery), '고요'(tranquility), '생기'(vitality)로 규정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국 기독교인의 개인적 신앙 훈련이나 교회 성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제시하였다(박아론, 1974)"며 "유교, 불교, 도교 및 무속 신앙 등 한국 토착 종교

안에 이미 새벽이 갖는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한국 특유의 기도 시간, 형태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미 백 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신학'은 한국 자신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새벽기도에 이어 많은 이들이 꼽은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 및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과 관련, 한국 자선교학이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3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한국형 교회 개척이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사역 중 하나인 교회 개척은 외형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으나, 실제 놀라운 열매로 이어진 것도 많다고 조 선교사는 말했다. 그

는 "한국 선교사들의 '저절적인 교회 개척'은 실패도 많을 수 있지만 열매가 큰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개척 방법, 과정, 그리고 열매는 충분히 '이론'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했다.

둘째는 한국형 리더십이다. 조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은 '1인 체제'에 강하다는 점"이라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대형교회라고 명명되는 교회들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중앙에 있다. 이러한 모습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여 오히려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형 리더십 자선교학'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고 했다.

셋째는 자생 파송 선교단체와 사역이다. 조 선교사는 "매뉴얼이 없어도 영성으로 풀어나가는 보이지 않은 구심력, 믿음에 강조되는 무모함 등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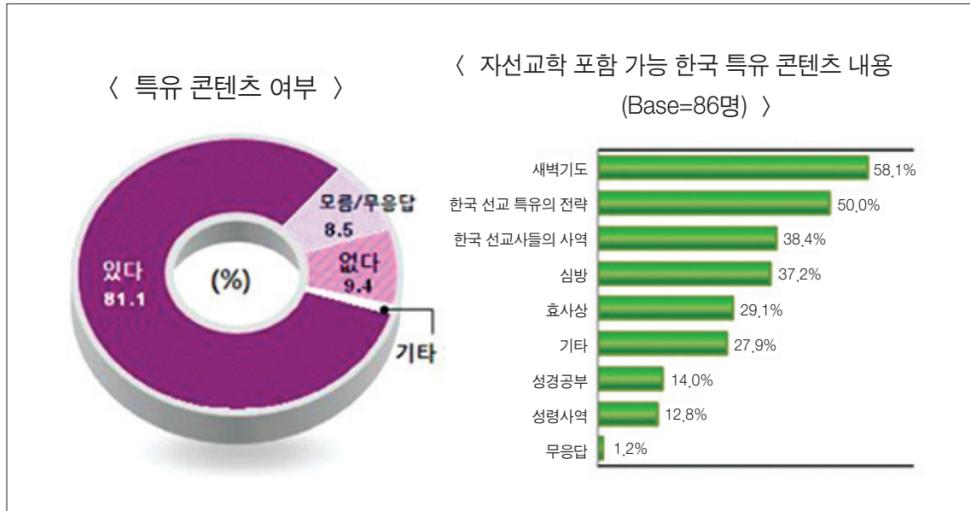
하는 방식이 '은혜'로 풀어나가는 등 한국 자생 단체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며 "자생적인 토종 선교단체들의 역사와 성장은 대부분 압축으로 성장해 온 30년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 토종 단체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며, 거기서 한국 특유의 자선교학이 발견되고 정립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토양에서 찾아 낸 다음에 가지 않은 '주제'들을 '학'으로 만들어 가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이론과 실정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한국 자신학, 자선교학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책임이 상실했던 시대나 더 위기 속의 한국을 말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한 위기들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면서, 변혁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기를 소망하며, 25,000여명의 한국 사역자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이 결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선교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WMA



한국 특유의 자선교학 콘텐츠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응답(왼쪽 도표)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오른쪽 도표) ©KWMA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홍원민대표: 170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4일~15일~서부지역영업) T.213.453.6624 (마리팅마케팅팀)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희자가격	\$90	240g 소희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50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홍삼순액 60포 \$180

홍삼순액 90포 \$255

홍삼순액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크리스천 글로벌 인재 양성해 다가올 시대 준비해야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에 미국 캠퍼스 개교



글로벌선진학교 미국 캠퍼스 개교 설명회가 7월 9일 옥스포드팰레스호텔에서 열렸다.

동성애 교육 정규교과 과정 편성, 교내 전도 활동·성경 공부·주기도문 금지, 창조론이나 지적설계론 교육에 대한 위법 판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세속화 물결이 공교육을 휩쓸며, 크리스천 학생과 학부모를 소외시키고 있다. 미국 공교육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리를 부정하는 혼돈한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다가오는 시대를 이끌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다.

“기독교 가치관을 기초로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민족지도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는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이사장: 남진석 목사, GVCS)가 펜실베니아에 제3 캠퍼스를 연다. 2003년 충청북도 음성에, 2011년 경상북도 문경에 캠퍼스를 연 GVCS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주목을 받아왔다. 올해 졸업생들은 미국의 다트머스, 예모리, UC버클리, UCLA, 조지아텍 등을 비롯해, 휘튼대학, 리버트대학 같은 명문 기독교 대학,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프랑스, 홍콩,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벨기에 등 최고대학에 합격했다.

GVCS는 9월 정오에 LA 옥스포드 팰레스호텔에서 미국 캠퍼스 개교 설명회를 열어 한인사회에 개교 소식을 전하며 학교의 비전을 나눴다. 미주 한인 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이 사회를 맡고,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가 개회기도를 드렸다.

미국 캠퍼스를 소개하며, 남진석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기적적으로 미국에 제3 캠퍼스를 세울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다. 저는 분단 상황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가 된 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우리 민족이 주체성을 갖고 이

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시대 청소년은 엔터테인먼트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선진 학생들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 문제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한다.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인다면,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과 관계 맺고, 세계를 위해 함께 일하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에 캠퍼스를 세운 취지를 전했다.

펜실베니아주 챔버스버그(Chambersburg)시 스코틀랜드(Scotland)에 위치한 이 캠퍼스는 미국 잠정용사의 자녀를 위한, 120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국립기독교학교였으나 미국 정부의 간섭정책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이를 인수한 와인브레너 신학대학원(Winebrenner Theological Seminary)이 GVCS를 글로벌 파트너로 정하고 캠퍼스 사용을 허가하면서 제3 캠퍼스가 세워졌다.

그는 음성과 문경 캠퍼스를 운영하며 얻은 확신을 갖고 제3캠퍼스를 열었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GVCS를 운영하면서 이 교육을 계속해도 될지 점검했다. ‘영 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를 잘할 수 있게 교육하면서도 공부만 하지 않고 운동과 악기도 배우고, 세계의 선교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학생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게다가 농사도 시키고, 휴냄새 맡으며 눈물 흘릴 줄 알도록, 정서적으로도 충만하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10년 동안 해보니, 결론은 ‘충분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미국 일반 기숙학교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혼자 할 수 없는 일 여기에 한인사회와 상의하며 해나갈 것이다.”

그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하

남을 모르면 쓸모없다. GVCS는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주일예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심어준다”고 전한 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제3 세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제 3세계 학생들도 데려와 교육할 것”이라 밝혔다.

캠퍼스 소개 영상과 질의응답 후 페이스 김(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석좌교수) 박사과 데이빗 김 박사를 GVCS 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장을 전달했다.

185에이커(약 23만평) 규모, 70개 건물과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춘 미국 캠퍼스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하며, 한국 GVCS에 재학 중인 8,9,10학년 생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정규운영은 2015년 가을학기부터이며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8,9학년 50명, 한국 및 외국인 학생 8,9학년 50명을 선발한다.

성경, 신학개론을 영어, 수학, 과학, 사회와 함께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해 가르치며, 축구, 배구, 미식축구, 오케스트라, 마칭밴드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제공한다. AP와 아너클래스가 있으며, 토플과 SAT 프로그램과 정체성 필수교육으로 태권도, 한국어 및 한국사 수업을 제공한다. 제자훈련, 수련회, 주일예배, 주중채플, 아침기도회를 통해 영성을 지도하며 20명 단위 기숙사 생활을 통해 생활지도도 한다.

GVCS는 교육심리학자 Bloom이 분류한 교육의 세 영역 ‘인식적, 감성적, 정신/운동적 영역’의 균형잡힌 발달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를 실험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재들 키워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 문의 : (한국) 1588-9147 (미국) 213-369-3112 www.gemgem.org 한 주디 기자

스마트폰에 빼앗긴 우리 자녀

낮은올타리 신상언 대표 토크콘서트

미주복음방송에서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1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신상언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N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이들이 참석해 신 선교사가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배우고자 눈과 귀를 모았다.

10일 토크쇼에서 신 선교사는 “청소년의 문제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교회를 나가도 마음을 빼앗겨서 변화가 없다”며 “신앙 교육은 종교적 행위의 습관을 길러주는 게 다가 아니라 세계관, 통찰력,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야기에 담긴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모든 것은 이야기 싸움이다. 미국처럼 이야기가 많은 곳이 없다. 부모는 자녀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흐뭇해하나, 정작 어떤 이야기에 관한 것인지 모른다.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야기에 담긴 잘못된 세계관이 이미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영적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이다.”

교회와 세상, 분리할 수 없어

그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복음을 상황에 적용해 해석하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이 있다. 이 사이에서 아이들은 혼돈에 빠진다. 컨텍스트를 가르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적용이 쉬웠으나 오늘날은 복잡한 여러 상황이 얽혀 있다. 교회 안에 머무르라고 부를 받은 게 아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모른다.”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신앙을 실천하려 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눴다.



신상언 선교사

“CCC에서 훈련을 받고 직장에 들어갔다. 회식을 하면 술을 마셔야 하니 회식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이 직장에서 순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씩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전도하려 했지만, 그들과 한 번도 생활을 나눠본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했다.”

그는 이러한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이 자녀들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세상에 적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수의 생명력과 세계관 가르쳐야

“복음을 잃어버리고 상품을 전시한 교회가 많다. 그것들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원동력 즉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틀 즉 세계관을 올바르게 갖춰야 한다.”

강의 후반부에서는 N세대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영상물을 제시하며, 이들에 잘못된 세계관이 스며들어와 N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교회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N세대에게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9년 “가정의 회복과 N세대 부흥을 꿈꾸는 문화사역단체” 낮은올타리를 설립해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교육에 앞장서온 신상언 선교사는 전문 문화사역자로서 한국과 해외에서 여러 강연을 이끌고 있다.

낮은올타리 LA 본부: 818-300-6868, www.wooltari.com 한 주디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맨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로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 · 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편 146: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은 이스라엘 제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찬송 시로 그의 신앙 간증이면서 고백입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유목민인 아버지에게서 여덟 명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자라났지만 믿음만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감동을 드린 참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상 13:14에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쓸모를 인정받음으로 목동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생각할수록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를 연발할 수밖에 없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그의 인생은 찬송으로 엮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은 다윗의 오늘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 다. 이것은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식과 애정, 의지의 인격체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흠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체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 버림받은 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이후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다가 찾지 못하면 다른 대체물을 찾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자 했던 본래의 영적 심리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 심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1-4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려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좇아서 그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녔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命定)하였느냐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오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하는 이 말씀은 세계 모든 나라와 만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관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절대주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역사를 엮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말하길 "너는 담대하라"라고 하며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을 합

니다(사41:5-6). 이처럼 인간들은 미신, 우상을 좇아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 재물을 좇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17-19에서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재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거나,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활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된다면 장래에 자신을 위한 좋은 자리를 하늘에 마련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보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선한 사업에 쓸 줄 아는 지혜는 내게서 흘러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몫으로 저축하는 것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집념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5-18)"한 구약의 이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신앙 담력과 정절의 본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를 다른 축으로 바꾸어 돌리기 시작하셨습니 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역사의 축이 되어 돌아갔으나 이제는 바벨론을 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수산궁에서 서러움과 수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정해진 시각에 절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 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믿음의 정절을 더럽힐 수 없어 절하지 않았습니 다. 왕 앞에 끌려온 이들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왕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낮빛이 변하여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하고는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4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 하였느니라"는 모세가 힘주어 강조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25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용도사명을 따라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신앙 정절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나 그 몸을 쫓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단 3:28-29)"고 우상이 난무하던 바벨론을 향해 명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어 소망하는 신앙인은 불꽃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그 구원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재료를 확증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편 147편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곁에 있는 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육신의 기대감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영적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생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인격과 의리와 예절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에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24-26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12-20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의 가장 올바른 생활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고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되 우리 육신의 형편이 어찌되던 간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여야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토록 가장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영생을 하느조건으로 보장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관리집사님 모십니다



주인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길
관리집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세례교인, 미국 합법거주자, 운전면허 소지자
교회관리 유경험자

지원서류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서류 접수 마감

7월 20일 (당일 도착 :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인사위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www.kccroc.com 714.893.1652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어느 칼럼집에서 읽은 글입니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돈, 딸,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백년을 함께 해로한 남편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늙으면 필요한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wife) 그리고 애들 엄마라고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볍게 유머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글입니다. 실제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특별히 은퇴를 하고 모든 전권이 아내에게 넘어간 순간부터 남성의 모든 복지와 안녕은 “전능하신 아내”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힘이 있을 때 아내에게 좀 더 잘 할 것을!” 후회해 보지만, 언제부터인지 싸늘하게 굳은 아내의 표정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얼굴입니다.

요즘 급부상하는 신조어 중의 하나가 “은퇴남편 증후군”(Retired Husband Syndrome, RHS)입니다. “황혼이혼”의 주범 1위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늦게 돌아오던 듬직한 남편이 은퇴 후에 이렇게 급변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

황혼의 여정(旅程)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루 중일 아내를 따라다니며 미주알고주알 간섭합니다. “시어머니의 분신”이며, “공포의 파자마맨”입니다. 게다가 사소한 말에도 쉽게 토라지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정년 미숙아”입니다. 24시간 거실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공포의 거실남”이 되기도 하고, “놀아줘”와 “밥줘”를 삼시세끼 외치는 “미운 삼식이”로 전락합니다. 놀라운 의술과 사회복지의 발전으로 고령화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노부부 간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평균 40년을 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노부부들의 화목 문제는 “남북한의 평화 공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처럼 보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황혼은 “여자가 남자를 안아야 할 때”(예레미야 31:22)입니다.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강한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하고, 과거에 당했다고 대갚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왔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정나미 떨어지는 것만 하면서 지내 왔다면 용기를 내서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깨동무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도 분담하고, 서로 묻고, 확인하면서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전에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항상 세 명의 여자와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여자,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본래의 여자, 그리고 나와 결혼으로 인해 바뀌어갈까 될 미래의 여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아직도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서로 노력하며 사랑을 키워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의 멋진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끝까지 해로하는 부부들의 모습! 이 시대가 보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공중그네타기의 원칙

오래 전에 서커스의 공중그네타기에 대한 글을 읽어 본 적이 있다. 공중그네타기란 높은 곳이다 그네를 매달아 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시간차를 두고 그네를 타다가, 한쪽편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이 자신의 손을 놓고 공중에서 여러 번 회전하여 다른 편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의 손을 잡고 무사히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한다. 글의 저자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묘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커스 단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 묘기를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입니까?”

이 때 그 단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손을 놓고 회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회전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기 생명을 불들어 주고 있다고 믿고 있던 그네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과감하게 손을 놓는 것이라고 한다. 만일 잠시라도 머뭇거리고 손을 놓지 않으려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늦게 놓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빨리 놓으면 그 사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그네에서 손을 놓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은 후에는 절대로 파트너의 손을 자기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파트너가 자기 손을 잡도록 완전히 믿고 맡겨야만 이 묘기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때에 과감하게 놓아야 하고 놓은 뒤에는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은 비단 서커스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들이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 없다. 믿음이란 바로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그네를 놓는 것이며, 놓은 다음에는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

기는 것이다.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그네를 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며,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구원의 문을 통과한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생명의 능력을 어떤 때는 누리는 것 같기도 어떤 때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능력은 기쁨과 평안, 용기와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왜 그럴까?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그네를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완전히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그네를 과감하게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 구원 받은 자에게 보장된 생명의 축복이 시작된다.

선택 그리고 피택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나 자라나는 과정은 다른 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느 정도 커서 대학교에 가거나 직장을 찾는 일, 그리고 사랑의 배필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리고 사후에 천당과 지옥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절대자의 권한이다.

사계절이 오차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동쪽에서 붉은 해가 떠 올라와 만물을 활성화 시키고 저녁이 되면 서산 뒤쪽으로 넘어갔다 내일 다시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안에서 모든 생물은 자연의 운행과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면서 번식하는데 유독 사람만은 그 주어진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해서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사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 오늘의 찬란한 문명을 쌓아 올려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이루고 있다. 그 발전의 기본은 인간들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떡집에 가면 수십 종류의 떡들이 있는데, 종류와 색깔이 각각 각색이고 맛이 다양도 같지 않다. 누군가는 설탕이 들어간 것을 선호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미 쌀이 들어간 것을 찾기도 한다. 학교를 정할 때 한 평생 같이 살 반려자를 찾을 때 고민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예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외는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폭군 스탈린의 친 여동생의 경우다. 독재 국가를 벗어나 자유의 나라 미국을 선택해 몇 년 살다가 못 살겠다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자가 나라에서는 주는대로 먹고 시키는대로 일하면 만나 OK인데 미국은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부담이 되어 못살겠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독재국가에서 망명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일을 너무도 힘들어 한다.

1830년 미국의 미들베리 대학교 졸업식에 와일더와 다른 한 친구 뜻은 공동 1등으로 졸업을 했다. 뜻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자 뜻은 너무도 괴로워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다른 친구 와일더는 신학교를 선택해서 졸업하여 인도에 선교사로서 30여 년 간 그곳

에서 3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며 수백만 명을 회개시키는 일을 했다.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도 차이가 컸다. 문제는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대개는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일부는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한다.

이민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경우다. 롯이라는 조카와 같이 고향을 떠나 새 땅에 정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좁은 지역에 두 집의 가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분가해야만 되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고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로 가리라.”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한 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박토를 취했다. 즉 롯은 이익을 우선했고 아브라함은 배려와 사랑을 우선으로 했다. 훗날 욕심을 위주로 선택한 롯은 불행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행복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문을 나서고 일할 때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몫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간격이 크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수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 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 겪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기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집단직전의 다리위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라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설(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취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취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취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팩(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했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성경이야기 12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터"서입니다. 에스터의 배경은 이스라엘 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제국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 나라에 에스터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터서에서 나오는 인물은 먼저 살파보뎀, 에스터의 남편인 바사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왕과 첫번째 왕비 와스디, 그리고 에스터의 삼촌 모르드개와 유대인을 죽이려하는 하만 이렇게 크게 5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에스터가 왕비에 오르기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를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가겠다고 하였고 이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한 왕비는 폐위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터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개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않는 모르드개로 인하여 바사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터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보게 됩니다. 1장3절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도 등 반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통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래따움을 뜻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17,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터를 위한 잔치라"** 에스터가 왕비가 되고 에스터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의 삼촌 모르드개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냈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201.953.002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샌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954.985.3928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 품은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든 조원재 목사의 개척 이야기

한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옷 입기를 배우고, 대수와 기하를 배우고 어른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 18년 넘게 미국에서 지냈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마다 거절됐다. 3년 반 동안 추방재판을 받았다. 작년 가을, 추방재판에서 판사가 물었다. “왜 영주권을 받길 원하는가?” “목사인데 선교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목사가 영주권이 필요하지. 당연히 줘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1살 생일을 앞둔 아들이 있었다. 아들 생일보다 늦게 영주권이 나온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판사가 영주권을 앞당겨 줬다. 아들은 18년 만에 한국에 갔다왔고, 조원재 목사는 17년 반 만에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일평생 소원이던 선교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97년 미국으로 온 조 목사는 사랑의 불꽃 잔치(Grace Tres Dias, GTD, 로마 가톨릭 쿠르시오 운동에서 유래했으나 이후 개신교 행사로 정착하며 가톨릭 색채를 제거했다. ‘하나님의 모두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체함이 강조된다.)를 통해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한 후 은혜한인교회 청년부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며 제자를 양육했다. 그런 그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체류’ 문제였다.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 다녔으나 뚜렷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목회’가 바로 답이었다.

하나님의은혜교회(God's Grace Church)는 작년 4월 7일에 설립된 이제 막 움을 띄우고 있는 교회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조원재 목사를 만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다. 목사가 된지는 10개월이 됐다. 교회 개척은 작년 4월 7일에 했다.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4년 동안 은혜한인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했다. 이후 40일 금식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소명, 목회 비전, 전략, 교회 이름을 모두 주셨다. 신학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Grace Mission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다. 개교회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

어 가기 위해 현재 57개국에 256명의 선교사 파송한 선교단체 GMI(Grace Mission International)의 선교를 돕고 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보다는 선교에 비중을 둔다.

개척 과정은?

저와 아내 둘이 개척을 시작했다. 전도사님이 첫 가정이었고, 동생이 두 번째 가정이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후원하라는 영감을 주셔서, 개척과 동시에 다른 개척교회를 섬겼다. 현재 11곳의 선교를 후원하고 있고 작년 9월, 개척한 지 5개월 반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현재 교인 수는 어른만 75명,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명이 안 되지만 부목사님, 찬양팀, 예배부, 미디어부, 교육부, 선교부, EM사역자 모두 갖췄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

11곳에 선교하고 있다. 파송선교사가 두 분 계시다. 교회 사역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8월에는 뒤셀도르프에서 청소년 사랑의 불꽃 잔치를 열고, 11월에는 인도 선교를 갈 계획이다. 지난 3월에 10명이 터키 선교를 다녀왔다. 통계에 따르면, 터키에 크리스천은 5천 명이 있으나 이중 거듭나 크리스천은 이수치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터키는 선교를 금지하지만 국민 99퍼센트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스라엘 선교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터키 선교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나?

터키는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선교한다. 자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통해 현지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동역하는 사역자에게 무상으로 신학교육을 제공해 그분들이 터키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회 개척 1년 2개월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선교지를 후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간증할 것이 있다면?

미국에 온지 18년이 넘었다. 영주권을 못 받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마다 거절됐다. 3년 반 동안 추방 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음성을 8년 전에 들려주셨다. 작년, 안수받기 전 추방재판을 받았는데 거절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4일 추방재판에서 기적같이 영주권을 받았다. 선교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 판사가 흔쾌히 줬다. 1월이 되면 아들이 21살이 되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11월 4일로 앞당겨 줬다. 아들이 18년 만에 한국에 갔고, 나는 17년 반 만에 선교를 다녀왔다. 일평생 소원이던 선교를 가는 것이었다.

개척한지 1년 2개월밖에 안됐지만 교회에서 10명이 함께 선교를 갔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놓았다. 미디어 사역에 큰 비전이 있다. 미디어의 악영향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원주민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략도 구상 중이다. 촬영 전문가인, 우리 교회 첫 번째 구역장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려 오셨다가 교인이 되셨다. 아무도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한 명씩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졌다. 터키 선교를 간 것도 기적이었다. 불가능했던 모든 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니 이루어졌다. 18년 전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다. 교회 개척과 함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비전과 목표가 세워지면 다 이루신다. 성령께서 다 하신다. 처음 우리 교회는 창고 건물에서 시작했다. 2달 됐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9월에 교인이 30명에 불과해 계속 창고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셨다. 그분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장소가 있다며 전화번호를 주셨다. 창고 건물을 3,000불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잔디밭, 교육부 공간, 식당 등 모든 필요한 공간 갖춰진 건물을 모든 유틸리티를 포함해 3,500불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개척한 지 10개월이 됐을 때, 100명 미만 개척교회 목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한다. 또, 첫 번째 구역장이 첫 번째 선교간 곳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느낀다.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크리스천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교회마다 다 건강하나? 성도들의 삶이 모든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



하나님의은혜교회 조원재 담임목사

님을 알고자 하고, 닮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기복신앙을 넘어 영혼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과 교제의 친밀함이 없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으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경건생활이 중요하다. 그날 그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로고스(logos)가 레마(rhema, 로고스가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구체적 삶에 적용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말씀'으로 '주관적 체험'에 방점이 놓인다)가 되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족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

불신자를 초청해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다니라고' 권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목적을 설명한다. 작년에 40명 정도 참석해서 6명이 교인이 됐다. 올해 10월에 이 행사를 다시 열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

는 장면을 담은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다”(창12:4)고 적혀있다. 오늘날 훌쩍 건너 뛰어 창세기 21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 세라”(창21:5)는 말씀이 나온다. 성경책 단 몇 장을 넘기면 건너뛴 수 있는 이 두 말씀 사이 시간의 격차는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간단히 건너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자마자 사라에게 잉태의 조짐이 있었다면 혹, 몇 년 안에 후손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공명이 그대로 간직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으니 ...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히6:13-15)라고 말한다. 개척한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주요 사역팀을 구성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은 이미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은' 그 시간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으며, 그 '오래 참음' 이야말로 진정한 놀라움일 것이다. 한 주디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인양성령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박석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오후 6:0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오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참회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오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오후 1:1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나눔 장로교회**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7:4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서대어람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대흥장로교회**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가디나선교회**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2:00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애티예배 오전 10:00 **토렌스 조은교회**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오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오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벤추라 감리교회**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후 5:3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토스채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토스채플) 오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플) 오후 11:45
특별강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플) 오후 8: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파사데나장로교회**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30(토)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힐루우성)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오후 8:00
오전 12:00(분양)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뉴저지 호산나복음화대성회 개최

강사 호성기 목사 “지식적 신앙에서 마음으로 믿는 신앙 돼라”



호산나복음화대성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저지교협(회장 김동욱 목사)이 주최하는 ‘2014 호산나복음화대성회’가 11일 오후 8시 뉴저지 잉글우드 지역 드와잇 머로우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뉴저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도의 기쁨이 되는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강사 호성기 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직전 총회장으로 각 교회마다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PGM선교회 대표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한인선교협의회 공동회장, 한인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회장, 세계전민인선교회 국제대표 등을 맡고 있다. 학력은 대전 중고등학교 졸업 후 조지아 임마누엘 대학교를 거쳐 뉴저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회장 김동욱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부흥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부흥은 특별한 묘수가 있거나 기교를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하며 이뤄진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욱 목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 말씀을 깨닫고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서 “이번 호산나복음화대성회를 통해 매시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이 집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강사 호성기 목사는 첫날 설교를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회복하라’(마17:14-20)

는 제목으로 전했다. 둘째날은 ‘믿음의 과정인 순종을 회복하라’(행12:1-12), 셋째날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행8:1-8)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호성기 목사는 먼저 모태신앙이던 자신이 방탕한 생활 끝에 24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호성기 목사는 “모태신앙인데 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인가. 머리가 뜨겁기보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 세계 곳곳을 선교를 위해 다녔지만 가장 먼 거리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말씀이 내려가는 30센티미터의 거리였다”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강조했다.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가정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호성기 목사는 믿음에 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성기 목사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김대원 기자

GSM 2014년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



2013 GSM 선한목자선교회 세계선교대회 및 가족수양회

전 세계 500여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선교사 Good Shepherd Mission. 이하 GSM)가 오는 7월 27일(주일)부터 30일(수)까지 시애틀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4년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를 개최한다.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는 전 세계에 파송돼 있는 GSM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모이는 매우 뜻 깊은 시간으로, 세계 선교의 현황과 사역의 발전 방안을 나누고 미래 선교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GSM 대표 황선규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전 세계, 각 지역의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겨왔다”며 “올해도 2014년 GSM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를 통해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힘을 누리고, 사역 발전에 도전 받길 바란다”고 초대하는 말을 전했다.

세계선교대회에서는 KIMNET 사역자들의 선교 특강과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 간증을 통해 선교 비전을 공유한다.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비전 컨퍼런스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교사 가

족 모두가 참석하기에 좋다.

GSM은 “올해 선교대회 및 가족 수양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선교와 GSM 선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가 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GSM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GSM 선교회는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해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2002년 7월 1일 15명 선교사 후원으로 시작으로 지금껏 빠르게 성장해 현재 선교사 500명, 후원자 570명에 이르는 탄탄한 선교단체다. 또 2021년까지 GSM 3000(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을 목표로 선교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GSM 선교회를 창립한 황선규 선교사는 시애틀 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하던 가운데 폐업 말기 진단을 받고 남은 생을 선교에 바치기로 결단해, 지난 2002년 은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교 일선 선교사들과 후방 선교지원을 연결하는 교량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문의: 206-321-7404(서성경/행사담당) 253-227-3424(이은송/사무간사) 김브라이언 기자

니카라과, 복음의 씨가 결실 맺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EM 중고등부의 니카라과 단기선교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EM 중고등부가 지난 6월 15일(주일)부터 26일(목)까지 니카라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사무엘 백 목사와 한규정 장로의 지도로 총 28명이 함께한 단기 선교팀은 약 4개월 전부터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해 왔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났다.

단기선교는 도착 다음날 아침부터 5백여 명의 아이들을 위한 VBS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점심에는 봉제공장에 가서 3천 명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저녁에는 근처 마을로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

이번 단기선교는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2가지 사역으로 인해 다른 해보다 더 뜻깊었다.

지난 5년 간의 단기선교는 선교팀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지 청년들이 여러 개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니카라과에 뿌리신 씨앗의 열매를 볼 수 있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청년집회에는 60여개 교회에서 모인 청년들이 참석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집회 둘째 날 아침에는 250여명의 현지 청년들이 빈

민촌을 돌아다니며 대규모 전도를 하기도 했다.

약 900명이 모인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밭파 사역'도 진행됐다. 김향자 니카라과 선교사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인다는 것은 지금 니카라과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 같은 일이 현지인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은 공립학교 두 곳을 방문해 VBS를 한 것이다. 가톨릭 영향권인 니카라과에서 공립학교를 방문해서 사역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향자 선교사는 "여러 도시의 시장들을 수차례 만나고, 수없이 설득한 끝에 드디어 허락을 받아냈으며, 연합교회 EM 중고등부 선교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기선교팀 한규정 장로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내린 비로 일부 일정들이 취소되고, 학교의 이유 없는 비협조적 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견뎌야 했던 영적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나이스크 컨퍼런스, 美 휴스턴주립대에서 성황리 개최

일대일 전도, 교도소 사역, 나이스크 비전에 관한 강의 이어져



이 컨퍼런스를 준비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이스크패밀리컨퍼런스(Nyskc Family Conference)가 텍사스 샘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국 내 50개 주를 중심으로 한 전국 컨퍼런스는 매년 1회 열리는 대회로, 텍사스주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오레곤, 애리조나, 알칸사, 뉴멕시코, 오하이오, 매릴랜드, 뉴욕, 캐나다, 필리핀, 한국에서 온 나이스크 가족들이 모여 예배 회복을 위한 성회 및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 준비위원장인 이인승 목사(새민음교회 담임)의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미 남부본부 자문위원 이재호 목사(중앙장로교회 담임)의 성찬식 집례 후 개회예배가 거행됐다. 이인승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옥기 목사(영락교회 담임)의 기도, 최기성 목사(GTS 교수, 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개회예배 이후에는 각 트랙별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나이스크 트랙은 학회장 윤사무엘 목사, MH(사모님), 임마누엘 최 목사(GTS 교수)가 맡았으며, NS & NF 트랙은 에즈라 김 목사(GTS 교수), 청년들과 중고등부 중심인 NP 트랙은 데이빗 전 목사(GTS 교수)가 담당했다.

이어 저녁 성회는 미 남부본부장 이인승 목사의 사회, 미 부분본부장 송영일 목사의 기도, NWM 총재 피종진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트랙별로 각각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특히 NF(Nyskc Future) 트랙에서는 예배회복에 필요한 5가지의 성경공부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NF 참석자들은 둘째 날 저녁 성회에도 참가했으며, 동성기도 시간과 성회 시간이 길었

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셋째 날에는 미 남부본부장 송영일 목사가 'Salvation One by One'을 주제로 전도에 대해 강론했다.

강의 전, 미 오리건 주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유희자 선교사의 사역보고도 있었다. 유 선교사는 "오랫동안 범죄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끼며 '복음의 땅 끝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면서 각 교회에서 이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강의 후에는 전도팀을 조별로 편성하여 샘휴스턴대학교로 직접 노방전도에 나섰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이 동참,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전도를 했다. 참석자들은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입는 좋은 시간이었다.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전도에 힘써야겠다"면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넷째 날에는 NS(Nyskc Steward), NP(Nyskc Passion), NF(Nyskc Future) 트랙으로 나뉜 참가자들이 함께 데이빗 전 목사의 '나이스크 비전' 강의를 경청하며, 나이스크인으로서의 결단과 다짐을 했다.

폐회예배는 이인승 목사의 사회, 유희자 목사(서기 겸 회계, 동산연합장로교회)의 기도, 피종진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어대학생단체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s.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7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포와 구제의 삶으로 살린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전 10:00(FC재출)
2부예배 오전 10:00(분당) 오후 12:30(분당)
3부예배 오전 12:30(FC재출)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 6:00(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분당)
T. 562-677-7777 / F. 562-677-7778 / ilovec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집회(매일 둘째 금) 오후 7:30

얼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얼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규약정립 영육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심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단체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일 첫째주
목요일성경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요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하는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일성령예배 오후 7:30
월요일성령예배 오후 7:3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00
화요일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혁목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회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KOBE PEARL LAS VEGAS

고베펄 벌몬갤러리아점에서 펼쳐는 -

한여름밤의 특별보석쇼!

7월 14일(월) 부터 7월 20일(일)까지 단 1주일간!
GREAT SUMMER NIGHT 밤 10시까지 연장영업!!

유색보석/홍산호 210세트 대박세일!



"한국인 정서에는 역시 한국세공 보석이 잘 맞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고베펄 세공 공장에서 100% 제작된 한국공법 유색보석 신제품들을 만나보세요!

천연 양식 해수진주,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매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인 가격대의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등 3000여점의 제품을 진주전문업체 고베펄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014년 신제품 대거출시!

유색보석컬렉션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200세트 전시



유색보석 2중세트 COLORSTONE MATCHED SET \$999



유색보석 2중세트 COLORSTONE MATCHED SET \$1499~\$1999



유색보석 3중세트 COLORSTONE MATCHED SET \$2499~\$3999

* 고베펄 유색보석 제품은 강남역삼동 세공공장에서 제작되는 100% 한국세공제품입니다.
* 유색보석 제품은 합성석(Synthetic)입니다.
* 상위제품 가격은 925 Silver/ Platinum 합금 가격기준입니다.

고베펄 진주귀걸이 \$199부터



8월 1일 라스베가스 2호점 스프링마운틴 코리아타운플라자 내 고베펄 매장오픈!

라스베가스 스프링마운틴 코리아타운플라자 내 그린마켓 옆 1300스퀘어피트 규모의 고베펄 상설매장 2호점이 탄생합니다.

6850 Spring Mountain Rd. Las Vegas, NV 89164

GRAND OPEN

일본산 인공홍산호 반지

2014 신제품



\$699 ~ \$799

UP TO 80% OFF 88볼 컬렉션!

인공 핵진주 브로치 18K 도금 CZ 세팅



\$198 ▶ \$88부터

인공 핵진주 펜던트 목걸이



실버도금 CZ 세팅 \$198 ▶ \$88부터

인공 핵진주 실버 귀걸이



\$158 ▶ \$88부터

무조건 원가 파격 세일!

"진주의 가치를 아시는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컬렉션 특별세일

아코야 한줄 목걸이 (6mm - 6.5mm) AKOYA SINGLE STRAND w/925 Silver Clasp Retail, \$3300 ▶ \$799

아코야 한줄 목걸이 (6.5mm - 7mm)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Retail, \$3999 ▶ \$1199

아코야 두줄 목걸이 (6mm - 6.5mm) AKOYA DOUBLE STRAND w/925 Silver Clasp Retail, \$5999 ▶ \$1499

아코야 한줄 목걸이 (7mm - 8mm)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Retail, \$7300 ▶ \$2599

*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진주는 화이트톤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크기 및 무게에 따라 가격이 소폭 다를수도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 모든 헬렌아이코 아코야제품은 보증서와 워런티가 포함됩니다.

'학' 스타일.. 고베펄 맞춤 진주목걸이는?

고베펄 사의 '학' 스타일 맞춤 진주 목걸이는 고객님의 목선을 날씬하고 '찰랑찰랑' 거리게 하면서 착달라 붙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 목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면 마치 학(鶴)이 되어 걷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고베펄 사만이 가지고 있는 실이 아닌 와이어에 의한 독보적인 세공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고베펄과 함께 성장하실 취급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213.389.3887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5가와 벌몬 갤러리아를 1층)

전세계적인 ‘컬러 스톤’ 붐과 고베펠 사가 펼치는 아름다운 향연



LA 한인타운 내
별몬 갤러리아 매장에서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여름밤의 유색 보석, 즉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엘에이 별몬 고베펠 주얼리 매장에서 울려 퍼진다. 그것도 한밤중까지 펼쳐지는 유색 보석 쇼 세레나데이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 소위 근년에 뜨고 있다는 컬러 스톤 보석들이 매장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들 유색 보석은 여름에 더 각광을 받아 시원한 여름 보석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루비는 7월의 탄생석이기도 하다. 루비는 연인에게 선물하면 끝이 없는 기쁨과 사랑의 열정을 느끼게 한다는 고가의 보석인데 일명 황옥으로 불리고 있다.

사파이어는 푸른색의 일종으로 여름 보석으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청옥이라고도 한다. 바다의 푸른 빛깔을 닮은 사파이어는 그 아름다움을 비길 데가 없다. 에메랄드는 청순을 상징하며 맑은 초록색이 눈병과 시력에 좋다 하여 반지의 장식석에 제격이기도 하다.

전 세계 주얼리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같이 루비뿐만 아니라 에메랄드, 사파이어, 홍산호 등 컬러 스톤이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 엘에이 보석 거리는 물론 세계 여러 보석 쇼에서도 대부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야말로 컬러 스톤이 매장 진열대와 쇼윈도마다 전에 없이 대거 진열돼 그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열정적인 붉은 색뿐만 아니라 주홍색과 청록색 등 컬러 보석이 보석업계에 화두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어쩌면 전세계적인 불황이기에 다이아몬드보다 값이 싼 유색 보석들이 더 각광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는 컬러 스톤이 보석업계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선명한 원색류로서 컬러풀한 각종 보석류들이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근래에 들어 패션 코드인 ‘로맨틱 룩’과 잘 매치되기 때문이다. 페미닌한 디자인의 의상과 열정적인 붉은 색 보석의 조화가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적인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빨강 파랑, 초록 등 선명한 원색류

이 유행색으로 꼽히면서 최근 여름 멋쟁이 여성들의 거리 모습이 더욱 컬러풀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전문 고베펠 사는 올 여름이 절정기로 치닫는 오는 7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1주일간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 스톤 퍼레이드를 엘에이 별몬에 있는 갤러리아 매장에서 ‘한밤의 유색 보석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보석쇼를 화려하게 펼친다.

밤 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연장 영업으로 계속되는 그야말로 한 여름밤 황홀하면서도 화려한 컬러 스톤 보석 쇼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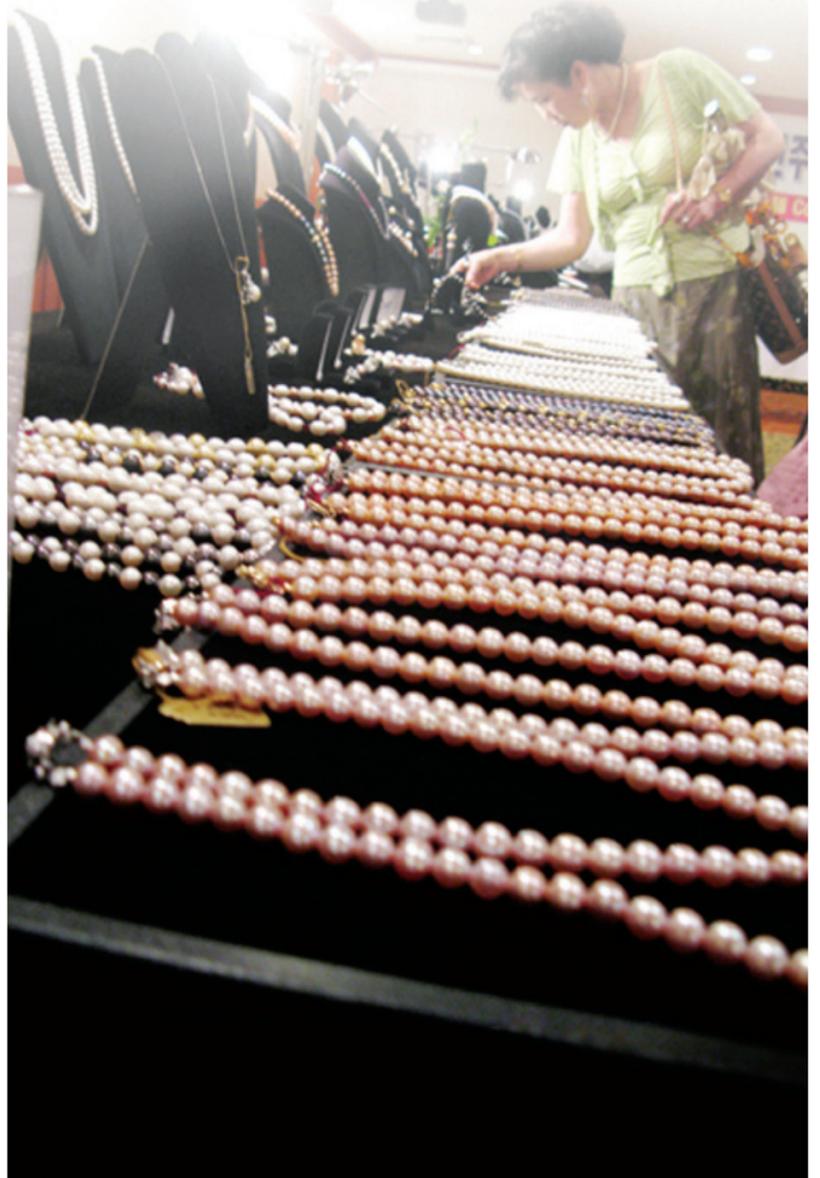
고베펠 사는 이번 컬러 스톤 향연에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의 210여 세트를 한국에서 공수 준비해 매장을 화려하게 수 놓기로 했다. 이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은 값 비싼 천연과 별차이 없는 합성보석으로 전 제품 한국 강남 세공에 레이저 공법에 의한 세공 기술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최상급으로 엄선한 제품들이다.

특히 이번 유색 보석 쇼에서는 고베펠 사의 인기 보석으로 자리매김한 천연 붉은 색 계열의 최고 품질 홍산호 반지, 귀걸이, 목걸이 3종 10세트가 준비돼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일본산 인공 홍산호도 매력적이어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홍산호는 아름다운 색깔과 고급스러움으로 인해 특별히 비즈니스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보석이다.

고베펠 사는 이번 보석 쇼에서도 주력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하며 최근 인기 폭발한 진주 반지, 귀걸이, 브로치 등 88볼 컬렉션도 대거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고베펠 사의 컬러 스톤 보석 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14년 7월 14일(월)-20일(일)까지, 7일간
장소 : 별몬 갤러리아내 고베펠 매장(5가와 별몬)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영업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 물건을 들다가 빼앗겨 허리가 아픈 분
-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를 뜻합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유기물질이면서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된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등록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 NDC(OTC Drug)로 인증 등록된 첨단의약품
- ◆ 본 제품은 면역조절제로써 면역증강 및 면역결핍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도 도움을 줌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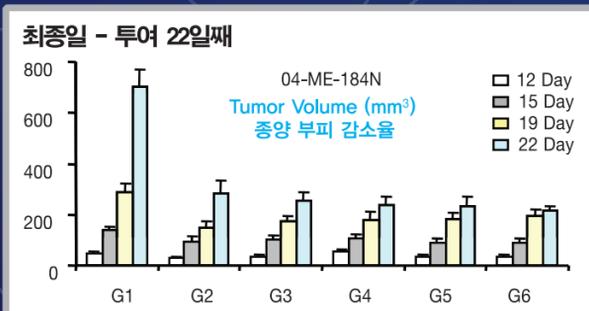
복용 후 5일 11/5/2013 복용 후 25일 11/25/2013 복용 후 77일 1/16/2014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때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의 FDA 인가된 비임상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것이며 자세한 데이터(64페이지)를 원하시면 본사를 방문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서승원 박사의 신학 칼럼>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8)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2. 하나님에 대한 다른 호칭들

- 1). 엘로힘 (אֱלֹהִים)
- 2). 엘(א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셈족 언어에서 단순히 신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이다. 따라서 이 말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랍어나 우가리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은 가나안과 시리아 지방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는 고유명사인 셈이다.

구약성경에도 “엘”이 이런 의미 즉 이 지역의 최고의 신의 이름으로 쓰인 예가 시82:1에 나타난다. 우리말 성경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보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하나님(אל)은 엘(אל)의 회중에 서서서 신들(אלים) 가운데서 재판하신다”이다. 여기에서 같은 “엘로힘(אלהים)”이라도 처음 것은 아웨 하나님을, 그리고 나중 것은 이방신들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엘”이 주관하는 신들의 회에 아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이다. “엘의 회중”이라는 말이 우가리트어에도 나타난다.

이 말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될 때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말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나타나는 예를 들자면 창21:33의 “영원하신 하나님”(엘 올람; אֱלֹהֵינוּ), 신4:24; 5:9; 6:15; 수24:19; 흠1:2의 “투기하시는 하나님”(엘 카나; אֱלֹהֵינוּ), 신32:4의 “참되신 하나님”(엘 에무나; אֱלֹהֵינוּ), 사5:16의 “거룩하신 하나님”(엘 하카도슈; אֱלֹהֵינוּ), 사45:21의 “의로우신 하나님”(엘 차디크; אֱלֹהֵינוּ), 시77:13의 “크신 하나님”(엘 가들; אֱלֹהֵינוּ) 그리고 호1:10의 “살아 계신 하나님”(엘 하이; אֱלֹהֵינוּ)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이러한 예에서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형용사이지만 명사인 경우도 없지 않은데 사10:21의 “능하신 하나님”(엘 기보르; אֱלֹהֵינוּ), 사12:2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엘 예슈아티; אֱלֹהֵינוּ)이 그런 예들이다. 그리고 시29:3의 “영광의 하나님”(엘 하카보드; אֱלֹהֵינוּ) 그리고 시31:5의 “진리의 하나님”(엘 에메트; אֱלֹהֵינוּ)도 같은 예들이다. 그런가 하면 사45:15의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엘 미스타테르; אֱלֹהֵינוּ)의 경우에는 수식어가 분사이다.

신 7:9에서 “신실하신 하나님”(the faithful God)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하엘 하네에만”(אֱלֹהֵינוּ נֶאֱמָר)인데 보다 문자적인 번역은 “하나님 그 진실하신 분”(the God the Faithful)이다. 이런 예에 속한 것으로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아마도 시22:1에 나오는 “엘리”(אל) 즉 “나의 하나님”일 것이다.

그러나 신5:26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엘 하이임”이 아니라 “엘로힘 하이임”(אֱלֹהֵינוּ חַיִּים)이다. 하나님의 이름인 “아웨”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과 결합할 때는 주로 “엘로힘(אלהים)”이란 말이 사용되지만 사42:5에 있어서와 같이 “엘(אל)”과 결합하는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시50:1에서 처럼 “엘 엘로힘 아웨”(אֱלֹהֵינוּ אֱלֹהֵינוּ אֱלֹהֵינוּ)처럼 세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엘” 또한 최상급의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시36:7; 80:11).

그 외에 이 부류에 속하지만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것으로는 “엘 엘르온”과 “엘 쇠다이”가 있다. “엘 엘르온”(אֱלֹהֵינוּ)에서 “엘르온”(אֱלֹהֵינוּ)은 “높은”(high)이란 뜻이다. 이 말은 창14:18-20, 22와 시 7:8; 78:35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시편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시78:56에서와 같이 “엘리온”이 “엘로힘”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엘”이나 “엘로힘”이 없이 “엘르온”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이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용했던 말이 아니라 그들에 앞서 가나안 백성들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주장이 있다.

하지만 시7:18에 “아웨의 이름인 일리온을 노래하리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형용사를 다른 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엘 쇠다이”(אל שדי)는 창17:1; 28:3; 35:11; 48:3; 출6:3; 겔10:5에 나오는데, 창17:1; 35:11; 48:3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창28:3; 겔10:5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 6:3 “전능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엘 엘리온”의 경우처럼 “엘”이 없이 “쇠다이”만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엘 쇠다이”의 원래의 뜻은 산신(god of mountains)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바빌론에서 “쇠두”라는 말이 산을 뜻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이 말이 “들, 평야”를

뜻하는 사데(שדי)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엘 쇠다이”를 “평야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 경우 같은 뜻을 가진 말로써 사다이(שדי)가 있는데, 이것이 그 형태나 발음에 있어서 사데(שדי)보다는 쇠다이에 더 가깝다 하겠다.

그런가 하면 “과괴하다, 멸망시키다”의 뜻을 가진 동사 “쇠다드”(שדיד)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심지어 “여자의 가슴”을 뜻하는 쇠드(שדי)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엘 쇠다이”를 “여성적인 신”을 뜻하는 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ndrew Jukes에 의하면 “쇠다이”는 “젖가슴이 있는 자(the breasted)” 또는 “쏟아 붓는자(the pourer-forth)”의 뜻을 가졌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흔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남성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하나님에게 여성의 “가슴을 가진 자”란 뜻을 지닌 말을 칭호로 사용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

한편, 어떤 유대학자들은 이 말을 “풍부, 충분, 여유”를 뜻하는 다이(די)와 관계대명사 아세르(אשר)의 약형 세(ש)의 결합으로 간주하여 “엘 쇠다이”를 “풍족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였다.

“쇠다이”의 어원이 무엇이든 “엘 쇠다이”를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원문의 문맥에 보다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아웨”가 아니라 “엘”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 중의 하나가 슈미트(Mark S. Smith)인데, 그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아래의 두 가지를 든다.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아웨”가 아니라 “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창49:24-25에 나오는 수식어들은 “엘”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신32:8-9에서 “아웨”는 “엘”의 아들들 중의 하나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우선 창15:7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26:25 그리고 창28:16에서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을 “아웨”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신은 처음부터 “아웨”였음을 말해 준다.

더 나아가 출3:15-6에서 “아웨”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 조상 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명칭에 “아웨”가 아니라 “엘”이 들어 있다는 사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서 “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인 고유명사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49:24-5에 나오는 수식어들이 “엘”에 속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원래 “엘”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수식어를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슈미트(Smith)가 말하는 “엘”의 고유한 수식어란 “엘 엘르온”과 “엘 쇠다이”의 “엘르온”과 “쇠다이”이다. 그래서 그는 신 32:8에 나오는 “엘르온”은 “엘”을 가리키고 이것은 32:9에 나오는 “아웨”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두 신을 같은 신 즉 “아웨”라고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창17:1과 35:11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엘 쇠다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아웨” 하나님 이전에 이방신 “엘”을 섬겼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만일 슈미트의 주장이 옳다면 다니엘(דניאל)도 “아웨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인 “엘”을 섬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도 섬긴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슈미트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엘”이 단순히 “힘”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인 예도 없지 않고, 엘로힘의 경우처럼 최상급의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3). 엘로야흐(אלוהים)

이 말은 구약에서 57회 나타난다. 신32:15에 처음 나타나고 이어서 17절에 나타난다. 욥기에서 41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사야서와 잠언에 각각 1회, 하박국에 2회, 그리고 시편에 1회 나타나

고, 그 밖에 역대하, 느헤미야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모두 5회 나타난다. 이 말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의 고행 즉 옛 형태일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말이 신명기에 두 번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성경에 나오는 사실로 미루어 “엘로힘”에서 만들어진 단수형일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스필전(Charles H. Spurgeon)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국의 Andrew Jukes(1815-1901)에 의하면 엘로힘(אלהים)이란 말이 “맹세하다” “서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알리”(אל)에서 나왔으며, 그래서 그 뜻은 “언약을 지키는 자”(one who keeps covenant)인데, 이것은 그 형태로 보아 “엘로힘”보다는 “엘로야흐”에 더 잘 어울리는 설명으로 보여진다.

4). 기타

그 밖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이삭의 두려움”(파하드 이츠하크; פחד יצחק), “야곱의 전능자”(아비르 야아콥; אביר יעקב), “야곱의 왕”(멜레크 야콥; מלך יעקב), “이스라엘의 왕”(멜레크 이스라엘; מלך ישראל), “이스라엘의 전능자”(아비르 이스라엘; אביר ישראל), “이스라엘의 반석”(에벤 이스라엘; אבן ישרא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존자”(내차하 이스라엘; נשא ישראל)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케도쉬 이스라엘; קדוש ישראל)가 있다.

이러한 호칭들의 특징은 그들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언급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개인과 연관된 사실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어떤 특정 지역과 결부된 사실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역에 결부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역과 연결된 예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창 31:13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베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예는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 5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13:18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한 예가 있는데, 이 이름은 후에 사9:6에서 장차 나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여러 이름들 중의 하나가 된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회복의 목회

이재철 | 홍성사 | 292쪽

약속한 임기 10년을 마치고 주님의교회를 떠난 이재철 목사가 들려주는,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역사(歷史)'.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저자가 성도들과 노력해 간 자취가 진솔하고 상세하게 담겨 있다. 여러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교회의 본질 회복 과정도 파악할 수 있다.



권위

마틴 로이드 존스 | 생명의말씀사 | 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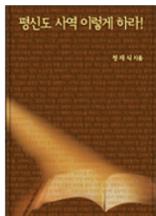
절대적 진리 없이 오로지 상대적인 것만이 존중받는 포스트 모던 시대,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저자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즉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성도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을 외쳐야 한다고 말한다.



평신도 사역 이렇게 하라!

정재식 | CLC | 656쪽

그리스도인은 평신도와 사역자로 구분된다. 교회에서 평신도란, 그저 방관자 내지 준사역자로만 여겨졌다. 저자는 성경이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고 명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평신도를 잠깐 제자로 세우기 위한 성경 해석도 곁들인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르우엘 L. 하우 | 미션월드 | 176쪽

저자가 美 침례교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장'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보완했다. 소그룹 교재로 사용 가능하며, 목회자들에게는 관계와 교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REVIEW

찬송가는 장담컨대, 우리 신앙 최고의 유산 ... <오래된 영원 찬송가>

"찬송가는 장담컨대, 우리 신앙 최고의 유산이다. 성경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은혜라면, 찬송가는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른 축복이다. 오랜 세월의 강을 넘고 시간의 문을 통과하며 견고 또 걸어 길이 된, 밝고 또 밝아 다져진 최고의 보화다."

찬송가는 어린 시절 '영혼의 양식'이었다. 피아노 학원에서 몇 달에 걸쳐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558장 '일곱 번 아멘'까지 쳐 보고는(한두 번씩이었지만) '성경 1독'을 한 것처럼 성취감을 만끽하기도 했다. 소리엘과 좋은씨앗, 박종호와 김명식과 웅기 장이를 알게 되고 찬양팀 반주를 맡으면서부터 그 열정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찬송가는 힘들 때마다 기대거나 불러내고 싶은 '엄마 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 주일 '대예배'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곳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통일찬송가'에 1백여 곡을 더해 만든 '21세기찬송가' 시대 이후, 찬송가는 교계 이권과 분쟁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오래된 영원 찬송가>는, 어쩌면 '찬송가'의 대척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CCM 사역자가 부르는 '찬송가 연가(戀歌)'이다. 읽다 보면 어디선가 품금으로 연주하는 찬송가의 선율이 들리는 듯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닌 이들이라면, 그 기억들이 아스라이 풍겨올 것이다. 저자는 이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노래는 시간을 보존한다"며 '음악의 기억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표현한다.

찬미위십 리더이자 소망의바다 멤버이고, '하늘 소망', '십자가의 전달자' 등을 쓴 민호기 목사는 이 책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 찬송가와 함께했던 신앙의 추억들을, 그 추억과 함께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린다. "오래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커져가 쌓인 시간의 무게가 새로운 숨결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상으로 인한 뜻밖의 공백기를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이고, 찬송가를 돌아보는 이 책과 동명의 음반을 내놓았다. 책에는 민 목사가 편곡한 찬송가 곡들의 악보가 수록되었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또 민호기 목사의 독서량과 성경 묵상 등이 곳곳에 담겨 있어 영성의 깊이를 짐작하게 해 준다. 곡을 쓰는 목회자답게 글솜씨도 뛰어나 단숨에 읽힌다.

민 목사가 이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20년 동안 음악 사역을 해 오며 많은 노래와 음반을 만들었는데, 정작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내 음반이 없다는 고민에서"부터였고, 그래서 "부디 현대적인 교회 음악의 흥왕에 정작 소외감을 느끼셨을지 모를 부모님과 어른 세대에 드리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개정 이전의 찬송가와 성경을 사용해 더욱 반갑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선곡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유 같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담겨 있다.



오래된 영원 찬송가
민호기 | 조이선교회 | 192쪽

"겸손히 엮드린 무릎, 성소를 향해 든 두 손. 입술엔 찬송의 열매. 거룩한 축제의 외침. 강 같이 흐르는 정의. 이 웃을 돌보는 섬김. 낮은 곳 향하는 나눔. 몸과 맘의 온전한 경건. 주께서 찾으신 산 제사 되게 하소서.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닌 언(言)과 행(行)의 일치, 글과 곡의 일치, 삶과 노래의 일치, 나의 뜻과 주의 뜻의 일치를 이루어 가며 일생을 드러 날마다 새 노래를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대웅 기자



저자 민호기 목사

그가 고른 곡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장수철·최봉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 귀한 것 드러', '복의 근원 감람하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주여 뜻대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석진영·박재훈)',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호운·이유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등이다. 애초 계획은 한국인이 만든 노래만을 신는 것이었는데, 결국 세 곡만 선택됐다.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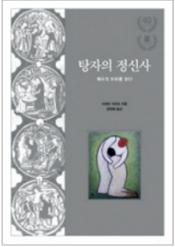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비유 중의 비유’ 돌아온 탕자가 모티브 <탕자의 정신사>

기독교 2천년 역사는 ‘탕자의 비유’ 를 어떻게 읽었나



탕자의 정신사(精神史)
미야타 미츠오 | 홍성사 | 176쪽

성경 속 ‘탕자의 비유’(눅 15:11-32)는 2천년 기독교 역사상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한 ‘비유 중의 비유’이다.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 소재였고, 문학가들과 미술가들의 작품 속 모티브가 됐다.

몇몇 예만 들어보면 1백여년 전 앙드레 지드는 ‘탕자의 비유’에 동생(셋째)을 등장시켜 재해석한 단편 <탕자 돌아오다>를 썼고, 이는 지금 이어령 박사가 즐겨 인용하는 책이기도 하다. 렘브란트는 여러 장의 ‘탕자의 귀향’을 남겼고, 헨리 나우웬은 4백여년 후 이 그림을 분석하는 동명의 명저를 출간했다.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이처럼 ‘뮤즈’와도 같은 이 ‘탕자의 비유’가 지난 2천년간 어떻게 읽혀 왔는지를 일본 도호쿠대 명예교수인 미야타 미츠오가 정리한 책이 <탕자의 정신사>이다.

‘정신사(精神史)’란 단어가 낯선데, 사전적으로는 ‘역사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으로서 정신을 고찰하는 역사

학’을 뜻한다. 책의 내용은 크게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과 동양에서 각각 나타난 기독교 미술 속 ‘돌아온 탕자’와 문학·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보는 ‘돌아온 탕자’ 등으로 나뉜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성경을 연구하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을 해 온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화적인 화법의 이야기꾼이었다”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대다수는 커다란 매력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회화적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선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현실성을 깨닫게 하려 애쓰셨다는 것.

특히 (그의 표현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새롭게 ‘되돌아가는’ 것을 염원하는 ‘잃어버린’ 아들이나 딸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시기를 나타내는 메시지”라며 “여기에는 잘 정리된 양식과 탁월한 내용에 의해 표현된 복음의 에센스가 내포되어 있고, 사실성서 이야기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탁월한 분석력과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 중세부터 작품화된 ‘탕자의 비유’를 도상학적으로 풀어 나간다. 길게는 중세 성경과 교회 태피스트리 속 작품들부터 알브레히트 뒤러, 히에로니무스 보스를 거쳐 종교개혁자들, 렘브란트, 로맹 이후 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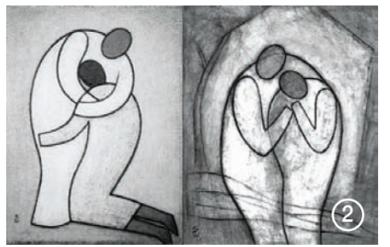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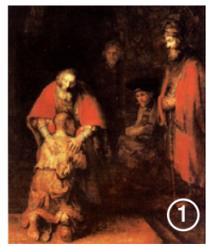
라흐, 사갈까지 서양에서 관통하는 정서와 시대별 차이점을 살핀다. 넓게는 중국의 전지(剪紙·전통 종이 오리기) 예술과 일본 와타나베 소이치의 ‘아들의 귀환’까지 훑으면서, 이를 통해 복음의 토착화(indigenization) 또는 문맥화(contextualization)까지 성찰한다.

저자는 2부 ‘돌아온 탕자의 정신사’를 통해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법과 문화를 토대로 동생과 형, 아버지의 입장을 살펴본 다음,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를 무작정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비유 자체가 말하자면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은유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 비유가 이야기되는 곳에서 예수의 인격과의 만남이 생겨나고,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비유는 결코 유일한 일회적 사건으로서 역사적·비판적으로만 해석돼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전해지고 들려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면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비유 해석을 다루고 있다.

도움을 주는 많은 그림들이 수록돼 있는데, 컬러로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작품들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설명할 만한 작품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아 아쉽다.

이대용 기자



1. 렘브란트가 만년에 그린 <탕자의 귀향>. 그는 탕자의 비유를 모티브로 여러 그림을 남겼는데, 이 작품에는 비유의 후반 이야기도 주도면밀하게 나타나 있다.
2.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미술가 와타나베 소이치의 작품 <아들의 귀환(원쪽)>. 저자는 “주변 인물이나 사건 등이 모두 제거되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재회만 그려져 있는데, 순수한 추상적 환원을 통해 본질적 메시지만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른쪽은 그가 계시록 21장을 다룬 <새 하늘 새 땅>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사건이 만민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으로 확인되고 있다. ©홍성사 제공
3. 비잔틴 성경 고사본 속 삽화. 돌아온 탕자를 다룬 그림은 11세기 작품들부터 발견된다. 텍스트를 읽어내림에 따라 비유를 한층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개를 이어 그리고 있다. ©홍성사 제공

‘자녀 교육 1인자’ 못 돼도, ‘자녀 위한 기도의 1인자’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김병태 | 브니엘 | 184쪽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김병태 목사(성전교회), 대표작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브니엘)의 개정판을 3년 만에 발간했다.

저자는 부모들을 향해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고의 기도봉을 정복하는 일만은 당신이 할 수 있다, 아니 꼭 해야만 한다”며 “최고의 부모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최고의 기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자녀를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라’,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의 부모가 되라’ 등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 스무 가지의 조언을 부모에게 전해주고 있다. 목회자답게 다양한 예화와 자신의 경험, 신앙

의 선배들의 이야기 등으로 독자들을 설득한다.

기도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을 따라해 보라. “사교육을 위해 돈을 쏟아붓기 전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라. 상처받기 쉬운 자녀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모의 기도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자녀의 길을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하기에는 벅한 나이이니, 부모가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저자는 체험을 통해 “은밀한 골방에서 흐리는 기도의 눈물은 절대 외

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회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부모들의 기도는 지금 하늘 보좌를 향해 곧바로 올라가고 있다.

김병태 목사는 그간 <행복한 자녀>,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언어>를 비롯하여 <관점: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신앙 습관 길들이기>,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 <희망과 행복을 만드는 회복 레시피>, <흔들리는 그대에게>와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의 제지 시리즈 등 다수의 책을 출간했다.

이대용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미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임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제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해당체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해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당체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자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이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il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윈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한국장로신문 미주지사 창간기념예배

및



제8회 사랑의 찬양제 Love Concert

안녕하십니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제39대 회장 김영 장로)에서는 창간 40주년 역사의 한국장로신문 미주지사 창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正路의 正論, 파수꾼의 任務, 正確한 나팔수의 사명감으로 새 출발 하는 한국장로신문 미주지사 창간을 축하해 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미주 한국교회와 장로들의 대변자로서 맡겨진 사명과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편집고문과 각 교회 및 각 학교 기자단을 비롯 함께하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신문, 기다려지는 신문, 사랑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서 선교사업을 통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지 및 여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언론과 여러분 모두 함께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로들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항상 그늘진 곳을 살피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부디 새롭게 출발하는 본지에 많은 후원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본회가 정한 역점 사업인 선교, 봉사, 구제 사업을 위한 전통의 **제8회 사랑의 찬양제(Love Concert)**가 한국장로신문 미주지사 창간 기념예배와 동시에 개최됩니다.

특히 본 행사에 각 단체장,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회원, 기사제휴 신문사, 본지 편집고문, 본 협의회 회원 장로 와 신문사 기자단과 임원 모두를 다음과 같이 초청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일시 | 2014.7.21(MON) PM5

장소 | Garden Suite Hotel

(213-383-0000, 68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주최 | 남가주 한인 장로 협의회, 한국장로신문 미주지사

후원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목사회,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사)한국시각 장애인 선교 연합회,
한국장로신문, 월서 주민의회, 기독일보



남 가 주 한 인 장 로 협 의 회

Korean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3240 Wilshire Blvd.Suite 2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284-1212 / William2wt@hotmail.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7 July
Special
Program**

**(FULL OPTION)
ALL NEW
2015
GENESIS SEDAN**

\$428 ^{+TAX}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tock# FU017232



**2014
HYUNDAI
SONATA GLS**

\$88 ^{+TAX}
36
Mon.

MSRP: \$22,415. 36 month lease.
After \$3,499 due at lease sign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2013 EQUUS
ULTIMATE
PACKAGE**

PURCHASE FOR AS LOW AS
\$52,170
^{+FEES}

Stock# DU070308
MSRP: \$67,170



SAVE UP TO
\$15,000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